

國語文字法 構想

國語文字法の 構想

申 昌 淳
(文科大學 國語國文學科)

A Design on Korean Writing System

Shin, Chang So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bstract

Hangul is effective in representing the phonetic form of Korean language. However, after analyzing the linguistic function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it is revealed that Hangul writing system is quite low in linguistic function. It is testified that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the Chinese character words, which encompass almost 70 percent of the Korean vocabularies, should b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stead of Hangul.

I

太初에 말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의 말은 勿論 입에서 나오는 音波를 手段으로 하는 音聲言語를 이르는 것이다. 文字의 出現은 音聲言語가 成立되고 나서 훨씬 뒤의 일이다. 두 가지 記號體系의 이같은 出現順位는 그들에 대한 人間의 要請을 反映하는 것이다. 人間社會의 成立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言語가 前提되지 않으면 안되었겠지만 文字에 대한 要請은 人間社會가 相當한 程度의 文化水準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提起되는 것이다.¹⁾

1) J. Vachek: "The Present State of Research in Written Language (1972)," *Selected Writings in English and General Linguistics*, Mouton, 1976, p. 139.

文化가 發達된 社會에 있어서의 文字言語의 重要性은 音聲言語의 그것에 결코 못지 않은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音聲言語 以外에 또 하나의 視覺的 言語體系를 마련할 수는 없다. 言語란 可謂 奇蹟이라 할만큼 놀라운 人間創造物인데, 이와는 전혀 다른 記號體系를 또 하나 더 創造할 能力을 人間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으려니와, 비록 마련된다 하더라도 두 가지 記號體系를 아울러 부릴 만한 能力을 人間들은 지니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리하여 文字는 必然的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言語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다. 곧 言語의 音聲的 記號를 視覺的 記號로 代替하는 것이다. 이 原理의 發見도 勿論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文字形成의 草創期에 있어서는 人們들은 直接 觀念을 적으려 하였다. 文字의 歷史에서 이른바 그림文字의 段階인데,²⁾ 그러나 이윽고 人們들은 이 方向으로 나아가는 길이 곧 막히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本來 文字에 대한 慾求는 言語가 發話되면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制約을 克服해 보려는 데에서 실패한 것이지만, 傳達內容이 複雜多端해지면서 그림 가지고는 그것이 不可能함을 알게 된 것이다. 人們들은 그리하여 自然히 言語 自體에로 눈을 돌리게 됐을 것이다. 人們들은 言語를 視覺的 符號로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다. 그런데 비록 無意識의인 것이긴 하겠지만, 이 認識은 다음과 같은 論理를 前提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言語란 것이 하나의 記號體系이며, 그 記號는 音聲에 投影되어 있다는 것, 音聲記號는 보다 確實하게 視覺的 符號로써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것.³⁾ 이러한 言語와 文字의 連繫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참다운 뜻으로서의 文字는 成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言語를 視覺的인 記號에 붙잡아 둔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A. Martinet 는 言語成立의 基本的인 要件으로서 二重分節을 들고 있거니와,⁴⁾ 言語의 一次分節은 言表의 展開의 有意味的인 單位로의 分節이며, 二次分節은 一次分節單位의 音韻單位로의 分節이다. 우선 一次分節의 單位를 文字가 바로 적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 文字가 감당하기에는 一次分節單位의 數는 너무 많다는 難關에 부딪칠 것이다. 달혀진 또는 未開된 社會에서는 日常的인 生活에 쓰이는 語彙數가 몇 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나, 文化가 發達된 社會에서 쓰이는 語彙數는 尠大한 것이다. 이를테면, 李熙昇 監修 「국어대사전」에는 25萬 8千 余의 語彙가 收錄되어 있고 世界最大의 辭書로 일컬어지는 NED에는 約 24萬 語가 나와 있다.⁵⁾ 그러니 文字가 言語의 一次分節單位를 잡는다는 것은 도대체 成功할 可望이 없는 것이다. 적어도 文明語에 대해서는 語彙를 直接 表象하는 文字體系는 생각할 수 없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나면 人們들은 저 漢字를 들며 漢

2) E. A. Llorack : “言語活動의 圖形的再現”, A. Martinet 編, 泉井久之助監修: 近代言語學大系 3, 言語と人間, 紀井國屋書店, 1972 (*Encyclopédie de la Pléide, Le Langage*, Éditions, Gallimard, 1968), p.265.

3) O. Ducrot & T. Todorov. 瀧田文彦他譯, 言語理論小事典, 東京 朝日新聞社, 1975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s Sciences du langage*, 1972), p. 269.

4) A. Martinet: *Elements of General Linguistics*, transl. by E. Palmer, Faber and Faber, 1964. pp.22-24.

5) *The Kenkyusha Dictionary of English Philology*, 東京, 研究社, 1940, “New English Dictionary 項.”

字는 글자마다 一定한 概念이 表象되어 있지 않느냐고 反駁할 것이다. 一般으로 漢字의 表意文字-오히려 表語文字라 함이 옳겠는데-라는 데 대해 正確한 認識을 가진 사람은 적다. 漢字를 表語文字라 하지만 그 內譯을 보면 漢字의 9割은 單語音을 적은 表音文字, 곧 形聲文字인 것이다.⁶⁾ 漢字를 生成來歷에 따라 여섯 가지로 分類하여 六書라 일컫는데, 象形, 會意, 指事 셋은 表意的인 手段에 따른 것이지만 形聲은 中國語 單語의 音을 적으려 한 것이며, 假借, 轉註는 이미 만들어진 文字의 轉用方法이다. 漢字生成의 初期段階에서는 아마 象形, 指事, 會意 등 方法이 쓰였겠지만 이미 본듯이 이 方法을 가지고는 成功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니 形聲의 方法이 發見되지 않을 수 없었겠고, 漢字는 이 表音의 手法을 얻고 나서 本格的인 文字로서의 段階로 접어들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形聲文字는 本質적으로 表音文字이지만 漢字 獨特의 面貌는 매우 지니고 있다. 中國語의 文章言語인 漢文은 이미 周代에 그 틀이 잡힌 一種의 人工語인데, 이 言語의 두드러진 特質은 單音節的, 孤立的이란 것이다. 이 特質에 따라 이 言語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同音異義語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表音의 手法만으로는 올바른 文字 구실을 다하게 할 수 없고, 表音의 形式에 意味範疇를 暗示하는 標識을 덧붙일 必要가 있었다. 그리하여 한편은 한 音節의 表音을, 또 한편은 그 單語의 意味範疇를 가리키는 複合的인 符號造作方式이 考案되었는데, 이것이 곧 形聲文字이다.⁷⁾ 複合的인 文字形成의 手法은 이미 會意文字 등에서 開發되어 있었으나 形聲의 경우 要素 中 하나가 表音的인 것이란 데에 新機軸을 보이고 있다. 하여튼, 以上 본바와 같이 漢字의 경우인들 表音이 文字成立의 必然的인 條件이란 原則에서 例外일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文字가 言語의 音聲形式을 적는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世界言語들을 調査해 봐도 音韻의 數는 40 안팎의 少數에 制限되어 있다고 하니, 結局 이 程度의 表音記號를 마련하면 되기 때문이다. 言語에 따라서는 音節單位로 적는 文字를 가지기도 하나 그 경우도 사람들이 넉넉히 부릴 수 있을 만한 부피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日本語의 音聲組織에 있어서의 最大의 音聲單位는 音節이어서 音韻文字는 所用되지 않으며 또 그 音節數는 百個 안팎의 것이어서, 이 言語를 表記하는 데에는 音節文字 곧 「가나」 文字로도 넉넉하다. 中國語에서도 二次分節單位는 워낙 單音節이므로 音韻文字는 所用되지 않고, 그래서 表音面으로만 본다면 漢字는 音節文字이다.⁸⁾ 다만, 이 경우 同音異義를 가리기 위한 裝置가 갖추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文字의 表音이라 하면 音標符號와 같은 正確한 表音, 곧 한 音韻 또는 한 音節에 正確히 一對一로 對應하는 符號體系를 豫想하겠지만 事實은 이 豫想과 맞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보통이다. 英

6) 六書中 諧聲이 90%, 象形이 5%, 나머지 5%가 會意나 假借라 함. S. E. Martin: "Nonalphabetic writing systems: Some observations." *Language by Ear and by Eye*, edit, by G. F. Kavanagh and J. G. Mattingly, The MIT Press, 1972, p. 84.

7) E. A. Llorach, 日譯本, 1972. p. 272.

8) A. Martinet 編著, 三宅德嘉監譯; 言語學事典, 大修館書店, 1972 (*La Linguistique Guide Alphonétique*, 1969), p. 218.

語의 exactly에서 *x*는 적어도 /gz/의 두音を 가리키고 있고 佛語의 /wazo/(oiseau)에서 一對一의 對應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文字法은 固定되어 있으나 口의 言語는 쉬지 않고 變한다는 것, 文字란 한 言語의 音聲組織을 正確히 把握한 다음 거기에 맞추어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란 것, 그 밖에 文字史를 펴보면 얼마든지 指摘되는 筆記者의 잘못된 語源意識에 따른 歪曲表記 등에 생각에 미친다면 當然한 歸結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單音文字 또는 音韻文字는 單音文字로 적기에 알맞는 言語에 알맞는 것이다. 單音文字의 代表인 알파베트는 대개 西洋語를 적고 있지만, 이들 言語에서도 言語資料를 分割해서 音節이란 單位에 이를 수 있으나 그 單位가 中國語나 日本語 또는 國語에서처럼 分明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言語에서는 音節의 境界를 決定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 이를테면, 英語에서 supply는 [sə-plai]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plain[plein]이란 單語에 [pl-]란 語頭子音群이 있으니까 [-plai]란 音節에도 한 가지 結合이 音節 첫머리에 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captain[kæptin]에서는 語頭に *[pt-]란 子音群을 가진 單語가 없으므로 [kæp-tin]으로 가르게 된다. 또 다른 例로 spring의 語頭に 있는 /spr-/는 (a)/sp-r/로도 (b)/s-pr/로도 가를 수 있겠지만, /p/는 /s/와도 (spin의 /sp-/) 또 /r/과도 (print의 /pr-/) 結合될 수 있으나 /s/로서는 /p/와 結合하여 /sp-/란 連結은 이루어도 /r/과 함께 */sr-/란 連結을 이루지는 않는다. 이같이 /s/와 /r/의 關係는 疏遠하므로 (a)/sp-r/처럼 가르는 것이 妥當하다.⁹⁾ 한편, 이들 言語에서는 때로는 子音들이 몇 개씩 이어지기도 한다: sports(英), Pferd(獨), grande(佛). 이런 言語에서는 그래서 自然히 音節單位보다 音素單位를 적는 文字 쪽이 더 便利한 것으로 擇해지게 된다.

國語를 적는 文字로서 우리는 한글을 가지고 있다. 한글은 世宗大王과 集賢殿의 學者들이 이미 充分히 發達된 漢字의 여러 文字들을 參考하면서 오늘날에 보아도 놀라운 水準의 國語音韻分析의 成果와 知識의 바탕 위에서 文字 그대로 「創製」한 文字이기 때문에 그것은 國語를 더 바랄 수 없이 正確하게 表音할 수 있다. 國語를 正確히 적기 위해서는 한글 같은 類型의 文字가 아니면 안 된다. 現代國語에 있어서 一般으로 쓰이는 音節의 數는 2千 余個가 된다고 한다.¹⁰⁾ 따라서, 國語를 音節文字로 적기로 한다면 2千 余個의 文字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니 이 類型은 採擇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單音單位로까지 分析한다면 40個 남짓(子音 19, 母音 21)의 文字로 國語를 온통 감쌀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글은 單音文字이지만 그 字母의 모양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實際使用에서는 그 自體로서 獨立하지 못하고 音節單位로 結合되어 쓰인다. 이같이 文字들을 다시 모아 더 큰 單位로 構成하여서 쓰는 例가 따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이를테면 契丹文字는 表音的인 文字要素를 左右 둘 나란히 하여 한 글자를 이룬 것을 내리쓴다¹¹⁾—꼭 特異한 措置임에는 틀림 없다. 그런데

9) 英語學大系 1, 音韻論, 東京: 大修館書店, 1971, pp.153 ~ 157.

10) 南廣祐, 現代國語國字의 諸問題, 一潮閣, 1970, p.58.

11) 西田龍雄: “文字の種類と機能,” 言語, Vol.13, No.4, 大修館書店, 1984, p.97.

이러한 措置는 國語의 音聲單位의 二重的인 性格을 反映하는 것이다. 어떤 學者들은 國語의 子音을 「닿소리」라 부르고 있다. 이 名稱의 뜻은 國語의 子音들은 홀로 설 수 없으며 반드시 母音과 한데 되어 音節을 이루어야 된다는 特質을 表示하려 한 것이다. 果然 「ㄱ」이니 「비」이니 「ㅍ」은 그 自體로는 調音의 姿勢일 뿐 소리를 이루지 못한다. 그 까닭은 이들 子音이 內破音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뒤이어지는 母音소리에 얹혀서야 비로소 제 音色을 들어낼 수 있다. 이리하여 國語 言表의 音聲的인 分析의 單位는 一旦 成節音이기 마련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한다면 國語의 有意味的 單位는 반드시 音節로 構成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國語를 적을 文字는 音節文字이어야 할 것이나 이미 본 바 二千 余個의 音節數가 그것을 許容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길은 音節을 다시 單音單位로 分析할 수 있으면서 그 單音文字들을 다시 묶어 音節을 이룰 수 있는 方式이다. 訓民正音에서는 이 論理를 簡單하게 “凡字 必合而成音호느니”란 말로 要約하고 있거니와, 訓民正音 創製者들의 國語音聲의 特質에 대한 깊은 洞察과 한글創製에서의 빈틈 없는 用心에 우리는 새삼 感嘆치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II

세상에는 흔히 文字發達論을 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象形文字보다 音節文字가 發達된 文字이며 그보다는 單音文字가 發達되었는데, 單音文字는 發達의 窮極에 이른 가장 理想的인 文字라는 것이다. 이런 文字論은, 그러나 文字에 관한 濶한 迷信 가운데의 또 다른 하나일 뿐이다. 이를테면, 가령 日本語를 적기 위해서 日本 「가나」와 로마字와가 주어진다면 日本사람들은 「가나」쪽을 擇하지 로마字는 마다 할 것이다. 日本語를 적기 위해서는 「가나」가 로마字에 비겨 훨씬 便利하기 때문이다. 日本語를 적는 데에는 50 余個의 「가나」文字가 必要한데, 로마字는 그 半數밖에 안 되는 數로 日本語를 다 적을 수 있다면 로마字가 더 나을 것도 같다. 그러나 로마字에 讓步 못할 「가나」文字의 長點도 있는 것이다: 우선 「가나」라면 한 글자로 적을 것을 로마字는 두 글자를 必要로 할 것이다(か-KA, ね-NE). 뿐만 아니라 日本語에서는 單音만이 나타나는 경우란 결코 없기 때문에 單音文字를 지닌다는 것은 10 萬分의 一 地圖로 너넉한 경우에 20 萬分의 一 地圖를 장만하는 것처럼 부질 없는 일이 된다. 國語에서처럼 日本語에서도 有意味的 單位의 直接構成要素는 音韻이 아니라 音節이다. 그리고 뒤에 볼 것이나 文字의 言語機能面에서는 單音文字보다 音節文字가 原則적으로 보다 效率的인 것이다. 25 個의 글자를 더 익히는 수고를 덜자고 日本語에 適合한 「가나」를 버리고 不適合한 로마字를 擇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밖에 안 된다.

漢字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西洋사람들은 흔히 賢明한 中國人이 어찌서 漢字같은 不便스러운 文字를 지니고 있는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나 中國語를 적기에는 漢字같은 文字가 가장 알맞기에 中國人은 漢字를 매양 쓰고 있는 것이다. 有名한 中國語學者 B. Karlgren의 말을 들어

보자. “알파벳文字만 보아온 우리들에게는 單語가 어떻게 들리는가를 分析하여 적는다는 것은 自明할만치 當然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原則은 우리 西洋의 言語에 특히 알맞는 것이고 不變化의 單音節로 나타내어지는 中國語에 있어서는 그 方法은 결코 한 가지로 不可缺하지도 않으며 또 그다지 魅力的인 것도 아니다. man, the man, men, the men, man's, the man's 등을 뜻하는 *njen(jen) 이란 單語가 있었다. 그것은 언제나 不變化이며 짧은 單音節이므로 가장 簡單하고도 效果的인 方法은 單音節 全體에 대해서 單一의 不變的인 記號「人」을 만드는 것이었다 等等.”¹²⁾ 抽象적으로 좋고 나쁜 文字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言語에는 알맞고 어느 言語에는 알맞지 않는 文字類型이 있을 뿐이다. 다만, 한 言語를 적기에 알맞는 文字類型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은 알아둘 必要가 있다. 이를테면, 알파벳의 歷史는 西洋語를 위한 文字로 알파벳에 이르기까지의 道程이 꽤 긴 것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從來 一般的으로 믿어지던, 文字發達論에 터한(基礎한) 文字評價는 批判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면 文字의 眞正한 評價는 어떤 基準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文字의 바른 評價基準을 얻기 위한 論議는 文字의 또 하나의 매우 重要的 側面의 把握 없이는 進行시킬 수가 없다. 대체 文字法을 論議하면서 言語의 音聲形式의 再生機能에만 注意하고 치우는 것은 그야말로 수박의 껍질 할 기格格이 된다. 文字記號에 의한 音聲形式의 再生은 말하자면 文字의 成立要件이지 文字의 存在意義가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音聲言語에 있어 音聲形式은 言語의 通達에 있어서의 媒介手段이지 言語의 存在意義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과 같은 理致이다. 言語는 사람의 생각을 담는 데에 또는 그 생각을 남과 交換하는 데에 存在意義가 있다. 그런데 言語의 意味內容은 有意味의 單位 곧 單語를 基盤으로 이루어진다. 單語를 構成要素로 하여 文法構造에 따라 構成된 言表 안에 意味內容이 담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言語에 意味가 담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構成要素인 單語에 意味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모래로써 城을 쌓을 수 없듯이 아무 意味도 없는 音聲이 言語의 意味內容을 形成할 수는 없다. 그래서 文字가 言語를 적는다는 것은 言語의 有意味的 單位를 적는다는 것이다. 다만, 그 적을 言語의 音聲組織이나 言語類型의 特質에 따라서 바로 이 有意味的 單位를 文字化할 수도 있고(漢字의 경우), 音節單位로 分析하여 그 音節을 적기도 하고(日本語의 「가나」 같은 경우), 또는 單音으로까지 分析하여 單音文字로 적기도 하는 것이다(한글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 우리는 흔히 文字의 機能을 單純히 言語의 聽覺的 記號를 文字의 視覺的 記號로 옮겨 놓는 것으로 誤解하고 있지만, 言語音의 單純한 再生은 音標文字의 機能이지 文字의 機能은 아니다. 지난날 文字論은 文字機能과 音標文字機能을 確實히 分辨하지 못한다는 根本的인 誤謬 위에 展開되었고, 거기에서 온갖 文字論上의 迷信이 이끌어졌던 것이다.¹³⁾

12) B. Karlgren, 大原信一等譯, 中國의 言語, 江南書院, 1958. (The Chinese Language 1949), pp. 6 ~ 11.

13) J. Vachek, “Some Remarks on Writing and Phonetic Transcription (1945),” *Selected Writings in English and General Linguistics*, Mouton, 1976.

우리는 다음에 文字機能이 ‘表語’에 있다는 것을 다지기 위하여 서너 가지 論證을 提示하기로 한다.

英語나 佛語의 綴字法을 들여다 보면, 여기에서는 文字는 이미 表音의 구실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는 印象을 받게 된다. 많은 綴字法改正論者는 이것을 問題거리로 삼고 있지만 英語나 佛語의 文字法の 機能이 그렇다고 그 때문에 조금만치라도 損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綴字形이 어떤 單語를 가리킨다는 關係에는 微動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文字形式이 어떤 單語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만 保障된다면 文字法の 機能은 充分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綴字形과 그 單語의 音聲形式과의 乖離는 容許될 수 있는 것이다. 勿論, 이 論理를 너무 極端으로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이미 본 듯이 文字言語는 音聲言語의 基盤 위에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單語의 綴字形이 그 單語의 音聲形式과 어느 만큼 連繫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文字法은 익히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은 틀림 없기 때문이다. 그러드라도 文字의 表音의 意義는 이런 程度의 것이며 本質的으로 文字의 言語的 機能과는 相關이 없는 것이다.

文字의 機能이 表音 아닌 表語에 있다는 것을 直說的으로 가리켜 주는 것은 漢字의 경우이다. 우리는 漢字로 된 글, 漢文을 읽을 때 構成漢字의 音を 통해서 文意를 理解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이루고 있는 漢字들의 意味를 根據로 한다. 그러기에 어떤 漢文文章을 中國人이 읽든 日本人이 읽든 그 글의 意味內容이 우리가 韓國漢字音으로 읽는 경우와 다르게 解釋되는 것은 아니다.¹⁴⁾ 또는, 우리는 漢文을 읽으면서 字音을 모르는 漢字가 더러 섞여 있거나 또는 어떤 漢字를 잘못된 字音으로 읽더라도 그 때문에 그 漢文文章을 잘못 解釋하지는 않는다. 漢字가 表意文字이기 때문에 可能的 일이라 여길지 모르나, 一般으로 글의 意味는 有意味의 單位를 통해서 把握되는 것인데, 漢文의 경우 그 單位가 바로 文字單位와 一致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Martinet 가 二重分節을 말할 때, 메시지를 構成하는 데에 所用되는 單位는 有意味의 單位를 위한 一次分節로서 끝나는 것이다. 다만, 이 單位의 數가 龐大하여 또 한 차례의 分節에 의한 音聲 單位를 얻고 그들의 結合에 의해 記號素를 構成한다는 手段을 빌리지 않고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限界를 넘기 때문에 二次分節이 要請되는 것이다. 二次分節은 그러므로 一次分節에 從屬되는 것이지 平行的인 것이 아니다.

言語學者들은 되풀이 言語의 音聲形式이 言語가 아님을 注意하고 있다.¹⁵⁾ 무릇 音聲은 어떤 記號의 씨니피양으로 되었을 때 비로소 價値를 가지게 된다. 가령 우리가 모르는 外國語를 들어도 그 音聲이 귀에 들어올 뿐 言語通達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이치를 端的으로 말해 준다. 音聲은 一定한 意味內容의 表現形式으로 採擇되어서 비로소 言語의 領域 안에 들어 놓여지는 것이며, 記號素의 表現形式이란 觀點에서는 그 素材가 聽覺的인 것이든 視覺的인 것이든 아무런 差異

14) J. B. Carroll: "The case for ideographic writing," *Language by Ear and by Eye*, edit, by J. F. Kavanagh and I. G. Mattingly, 1972. p. 104.

15) 이를테면 L. Hjelmslev, 竹内孝次譯, "言語理論の確立をめぐって," 岩波書店, 1985(Omkring Sprogteoriens Grundloeggelse, 1943), pp. 59 ~ 60

가 없는 것이다. 다만 文字는 音聲言語 위에 세워진 탓으로 生成에서부터 音聲形式과 떨어질 수 없는 制限 속에 運命지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漢字의 경우에 보듯이 文字는 어느 만큼 音聲言語와 分離하여 獨自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이것은 形式에서 弁別的 差異를 이루는 手段이 聽覺的인 形式에서 보다 視覺的인 記號에 있어서가 더 豊富하기 때문이다.¹⁶⁾

文字의 表語機能의 意義는 文字로 쓰인 것을 받아들이는 쪽—讀者의 立場에서 主張되는 것이다. 文字發生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文字의 意義는 文字로 쓰인 것을 읽는 면보다 文字에 의한 記錄의 면에서 찾아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近代社會에 들어와서 讀者나 文獻의 數가 엄청나게 增大하면서 文字에 담긴 龐大한 情報量을 讀者로 하여금 어떻게 보다 能率的으로 處理하게 하느냐에 文字法의 意義를 묻게 되었다. 그에 따라 文字法에 要求되는 德目は 單語 혹은 單語類를 빠르게, 쉽게, 바르게 認識케 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表音한 文字 하나하나를 뜯어 읽을 수 없으며 單語 혹은 보다 큰 單位를 讀書에서의 認識單位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文字의 評價基準도 그리하여 自然히 表語機能이 보다 큰 것, 곧 보다 直接的으로 單語表記를 할 수 있는 文字類型이 序列의 앞자리에 서게 된다. 近代의인 文字法에서 가장 앞자리에 앉게 되는 것은 漢字이며 單音文字는 音節文字 뒤에 놓이게 된다.

言語를 現實化하는 媒介體는 音聲이며, 文字는 圖形的 表現으로써 이를 第二次的으로 表明한다. 그리하여 어떤 한 言語의 文字法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文字는 그 言語의 音聲의 表現을 圖形的 表現으로 再生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때 어떤 文字類型이 擇해지느냐는 文字가 적을 言語의 音聲組織, 形態類型의 特徵 등에 의해 規定되기 마련이다. 한 言語의 文字體系는 이런 뜻에서는 選擇된다고보다 強制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妥當하겠다. 이를테면, 國語를 적기 위해서는 結局 한글 같은 文字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 주어진 文字로 어떻게 보다 높은 言語的 機能을 이룰 수 있게 하는가는 그 文字를 쓰는 사람들의 知慧의 發揮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에 이런 觀點에서 우리 둘째에서 보는 여러 文字法들을 잠깐 檢討해 보고 이어 國語文字法을 構想해 보기로 한다: 漢字는 워낙 表語와 直結되는 文字이고, 또 그것은 中國語의 單音節的·孤立的이란 特質에 잘 어울리는만큼, 表音的 機能에 若干의 不便함이 있긴 하나 오늘의 中國語文字法은 近代의인 文字法으로 훌륭하다. 西洋語들을 적는 文字는 알파벳, 곧 單音文字體系이어서 그 言語的 機能이 낮을 것으로 豫想된다. 그런데, 西洋語에 있어서는 單語란 單位가 뚜렷하므로 空白으로 區劃된 이 單位의 Gestalt—綴字形은 讀書에서의 認識單位와 一致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것은 單音文字이면서 文字法에서는 表語文字體系로 機能하여 西洋語의 文字法이 近代의 文字法이 됨을 잃지 않게 하고 있다. 日本語는 우리 國語와 같이 膠着語的인 言語類型에 屬하며 音節的 表音文字인 「가나」로 表記되므로—한글 또한 音節的 表音文字로서 쓰인다는 것을 想起하자—우리의 경우와 條件이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의 參考가 된다. 그런데 가

16) A. Martinet 編著, 泉井久之助監修, 近代言語學大系 1. 言語の本質, 紀井國屋書店, 1971. p. 32.

령 日本語가 「가나」만으로 적힌다면 그 言語的 機能의 低劣性으로 도저히 近代의 文字法으로서 구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日本語文字法에서는 여기에 表語文字인 漢字를 導入함으로써 次元的인 質의 轉換을 이루고 있다. 漢字와 「가나」로 調和를 이룬 日本語의 文字法은 주어진 與件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理想的인 文字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文字法은 어떻게 構想되어야 할 것인가.

III

文字法の 機能이 言語의 有意的 單位의 表示에 있다면 國語文字法の 論議는 國語의 有意味的 單位의 究明에서부터 出發하지 않으면 안된다.

從來 國文法學者들은 國文法을 構想하면서 西洋語에 맞추어서 마련된 西洋語文法の 틀에 國語를 그대로 갖다 맞춘다는 잘못에 빠졌지만 文法單位設定의 問題에 있어서도 대개 이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言語類型上 西洋語는 屈折語에 屬하거나 이 類型에서는 앞에서 본듯이 統辭的 基本單位로서 單語란 單位가 뚜렷하다. 따라서 이 言語의 文字法에서는 單語마다 띄어 써서 單語가 쉽게 그리고 뚜렷이 認識되도록 하는 것을 第一要件으로 한다. 한편, 國語는 膠着語 類型에 屬하는 言語이다. 그런데 從來 國文法學者들은 國語에 대한 充分한 觀察 없이 미리 單語란 單位부터 設定하고 그것으로써 國文法을 分析하려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虛心擔懷하게 이 言語의 文法單位를 살핀다면 西洋語에서와 같은 뜻의 單語란 單位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發見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問題를 자세히 論議할 餘裕를 못 가지므로 論證은 暫 稿에 미루기로 하고¹⁷⁾ 여기서는 必要한 結論만을 提示하기로 하겠는데, 端的으로 國語에서는 統辭的 基本單位로는 單語 대신에 語彙素, 그리고 添辭(토)라 이름 붙일 수 있을 單位를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語彙素는 語彙的 意味를 지닌 實質的인 單位이다. 單語는 무엇보다도 自立形式임을 要件으로 하는데, 體言, 冠形詞, 副詞 등을 이루는 語彙素는 정녕 西洋語의 單語와 한 가지 自立形式이지만, 그러나 用語의 경우 그 語彙素는 自立的이 못 되고 依存的이다(가, 먹, 읽, 눈, 빠르). 用言은 그래서 言表에 나타날 때는 언제나 添辭(토)와 한데 된 syntagm-用言複合體로서이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 暫定的인 複合體에서 語彙素의 部分을 便宜上 語幹, 토를 語尾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 때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誤解, 이 暫定的인 複合體를 本來的 基本單位로 여기는 잘못에 빠지지 말도록 注意해야 할 것이다. 語幹과 語尾가 結合된 것은 言表에는 依存形式만으로는 나타날 수 없어 하나의 自立形式을 이루기 위한 方便일 뿐, 用言複合體는 어느 語彙素와 한 [레벨]에 놓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例文을 통한 說明이 認識을 더 具體化시켜 줄 것이다. 「꽃이 뜰에 활짝 피었다」. 여기에서 表面上으로는 ‘있’과 ‘다’는 ‘피’에 添加되어 ‘피었다’란

17) 拙稿: “國文法の 基本單位,” 干雲朴炳采博士還曆紀念論叢, 1985. 參照.

自立的 單位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文法的인 分析은 이 文을 ‘꽃이 뜰에 활짝 피’와 ‘있’, ‘다’로 가를 것을 要求하는 것이다. ‘꽃이 뜰에 활짝 피-’는 이 文의 命題를 表象한 句이며, ‘피-’는 그 句의 中核인 叙述語가 되어 있다. 이 句에 ‘있’과 ‘다’가 添加되면서 이 句를 ‘現動化’(actualize)하고 있는 것이다. 곧, 添加된 托들은 앞서는 句에 의해서 나타내어진 命題를 一定한 樣態로 規定한다: ‘다’는 ‘꽃이 활짝 피’란 命題內容을 平叙的으로 끝맺으면서 文으로 獨立시키고 있고, ‘있’은 그 命題內容이 完了된 狀態로 눈 앞에 있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다.

토에 잠깐 눈을 돌린다면, 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用言語彙素에만 添加되는 것-이른바 語尾, 그리고 補助語幹-, 다른 하나는 體言, 副詞 또는 自立形式 一般에 添加되는 것-이른바 助辭-과로 된다.

이와 같이 國語와 西洋語의 統辭的 基本單位가 이미 그 特性을 달리하므로 그 文字法이 한 가지 原理 위에 세워질 수 없을 것이 짐작되는 터이나, 그러나 알파벳이나 한글이나 다같이 單音文字란 根據 위에서 西洋語에서의 文字法의 原理가 國語文字法에도 그대로 適用될 수 있는지를 한 번 檢討해 보는 것도 意義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適用의 操作은 처음부터 順調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남을 본다. 國語의 語彙素와 토는 各己 獨立된 單位이긴 하지만 西洋語의 單語처럼 自立性이 뚜렷치가 않고 話線上에서 흔히 이웃하는 辭項의 影響을 받고 本然의 모습을 잃어 버린다: 우선 閉音節로 끝나는 語彙素에 母音으로 시작된 토가 이어지면 語彙素의 語末子音은 토의 初聲 자리로 옮겨간다: 집이→/지비/, 먹어→/머거/. 이런 現象은 佛語의 liaison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나,¹⁸⁾ 그러나 西洋語에서는 一般的으로 한 單語가 울타리를 넘어 다른 單語 안에 스며 드는 일은 드물다. 이를테면, This is an apple.은 어디까지나 /ðis iz ən æpl/이지 /ðisi zanæpl/로 되지는 않는다. 또, 비슷한 가락으로, 語彙素와 토는 흔히 相互作用에 의한 形態變動을 보인다: ‘밥만’, ‘먹는다’는 /밥만/, /멍는다/로 되며, ‘꽃도’, ‘피었네’는 /꽃도/, /피었네/로 된다. 이 또한 西洋語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西洋語의 單語들은 언제나 個體의 모양을 堅持하고 있지만 國語의 語彙素와 토는 항상 結合되어 있는 탓으로 個性을 잃고 하나로 녹아들려 하는 것이다. 한글맞춤법의 基本原則은 이러한 語彙素와 토의 癒着을 애써 막으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곧, 體言과 토, 用言의 語幹과 語尾는 제 本來의 모양으로 밝혀 적기를 強調하는 것이다. 하여튼, 이같이 하면 基本單位의 基本形態의 堅持는 保障되므로 國語의 두 文法單位는 西洋語의 單語와 한 가지 條件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다음 操作-表記單位의 境界를 明示하기 위한 各 單位마다의 띄어쓰기-을 實施하기로 하자. 實際로 例文을 띄어쓰기 하여 그 效果를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개가 학교에서 만이라도 까불지 말아야겠는데요」→〈개(그 애)가 학교에서 만 이라도 까불지 말아야겠는데요〉. 이것은 거의 音節마다 띄어 쓰는 것과 같은 꼴이 되고 있다. ‘토’란 대개 一, 二音節의 短小한 形態로 되어 있고 用言語幹 또한 그러하니 當然한 일이다. 이같은 띄어쓰기를 한글풀어

18) Nous allons envisager une hypothèse. 는 [nuzalɔ̃ zāvizaʒer yniptɛːz]로 發音된다.

쓰기論者들이 主張한 일도 있지만 良識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表記法임에 틀림없다.

西洋語의 單語와 國語에서의 語彙素 및 토는 統辭的 基本單位란 點에서는 한 가지이지만 文字法의 立場에서는 도대체 같은 次元에 놓고 볼 言語形式이 아니다. 單語는 무엇보다도 自立的임을 條件으로 하거니와 國語의 語彙素는 반드시 自立的인 것도 아니며, 토로 말하면 언제나 自立的이 못 된다. 토는 그래서 앞서는 辭項에 添加되어서야 비로소 存立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西洋語의 單語에 對應하는 國語의 單位는 語彙素와 토 自體라기보다 그들의 複合體라 할 것이다. 西洋語의 文字法에서 單語마다 띄어 쓴다면 國語文字法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複合體마다를 띄어 쓰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西洋語의 單語에 對應하는 國語의 單位로 우리는 일찌기 語彙素와 토란 單位를 세웠지만, 여기에서 다시 그들의 複合體를 單語에 對應하는 單位로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二重性은 앞서 본 바 西洋語에서는 單語의 構成材料가 바로 音韻임에 비해 國語에서는 音韻은 音節을 거쳐서야 意味的 單位의 素材가 될 수 있다는 關係를 想起케 한다.

西洋語의 文字法을 檢討하다 보면 우리는 알파벳으로 적히는 西洋語文字法이 그 言語的 機能面에서도 優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西洋語의 文字法은 아마 單音文字의 文字法으로서 바랄 수 있는 理想에 合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言及한 바대로 西洋語에 있어서 單語의 個體는 워낙 뚜렷하므로 이를 文字法에 그대로 投影하면, 곧 單語마다 띄어쓰기를 하면 띄어쓰기된 單位와 讀書에 있어서의 認識單位와가 또한 그대로 一致한다. 혹시 西洋語의 屈折現象을 들겠지만 이 變動도 單語 안에서의 波動일 뿐 單語의 基本形態는 매양 간직되고 있다. 이리하여 西洋語의 文章을 읽을 때 우리는 單語를 읽지 그것을 이루고 있는 字母를 읽지 않는다. 흔히 西洋語의 文字法을 評價하여 알파벳으로 적혔지만 實際로는 表語文字的이라 하는 것은 이런 뜻에서인데,¹⁹⁾ 西洋語의 文字法은 表記面에서 뿐 아니라 讀書面에서도 꼭 機能的인 것이다.

이미 豫想되듯이 한글에 의한 國語表記는 이같은 福을 누리지 못한다. 이 言語의 文字法에서는 토가 바뀌는데 따라 表記單位는 固定되어 있지 못하고 多樣하게 變貌한다. 밥을, 밥도, 밥이나마, 밥만이라도 ; 먹고, 먹게야, 먹다가는, 먹는지요, 먹습니다. 이런 까닭에 語彙素, 토의 複合體를 讀書에서의 認識單位로 삼을 수가 없다. 固定된 認識單位로서의 Gestalt 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매양 語彙素마다 토마다 認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實際로는 거의 音節마다에 —히 눈이 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된다.

알파벳이나 한글이나 다 같이 單音文字이지만 文字法으로 展開될 때에는 둘의 效用價値는 判의 것이 된다. 하나는 表語機能에 直結되지만, 하나는 音形의 認識을 통해 有意味的 單位의 認識에 이르는 能率이 낮은 文字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글맞춤법에 의한 基本形 固定으로 表語의 效果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效果란 西洋語 文字法에서의 경우

19) A. C. Moorhouse, ねずまさし譯, 文字の歴史, 岩波書店, 1956 (*Writing and the Alphabet*, 1946, London), pp.122~123.

에 한 데 놓고 비길 것이 못되는 퍼 微微한 것이다. 이리하여 한글에 의한 國語文字法은 그 言語的 機能에 있어서는 매우 效率이 낮은 表音的 文字法에 머물 수밖에 없는 運命에 있다. 이 問題는 뒤에 다룰 宿題로 남겨두기로 하고, 以上 論議에서 얻은 적지 않은 敎訓들을 整理하여 보자. 우선 文字의 評價는 單獨으로 文字만 놓고 내릴 것이 아니며 文字法으로서의 綜合된 觀點에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 言語의 文字法은 그 言語의 特徵-특히 그 音聲組織과 그 形態的 類型의 特徵-과 잘 調和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言語를 떠난 抽象的인 文字法은 空中에 뜬 것이 될 뿐이다. 그리고 近代的인 文字法은 言語的 機能이 높은 것, 곧 讀書效能을 높일 수 있는 것을 目標로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文字法 構想에 있어 덧붙일 條件은 그 言語의 語彙의 特質이 또한 充分히 調查·反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文字法의 機能이 表語에 있는 만큼 國語文字法이 國語語彙의 特質을 考慮 않고 構想된다면 그것은 設計段階에서부터 缺陷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國語의 語彙體系를 살필 때 금방 눈에 띄는 特質은 말할 것도 없이 그 構成의 大半을 漢字語가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國語辭典에서 調査한 것이지만 國語의 全 語彙의 거의 70%를 漢字語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事實은 國語文字法의 論議는 漢字語表記問題를 그 中心자리에 놓고 展開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從來 國語文字法論議에서는 항상 漢字語表記問題는 論議의 울 밖에 밀려 내어져 있었다. 혹시 다루어진다 해도 한것해서 한글로 漢字音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 하는 讀音달기에 그쳤으며, 論議의 廣場은 한글맞춤법이 獨占하였다. 이같이 한글맞춤법과 漢字語表記問題를 別個로 떼어 놓고 國語文字法을 構想해도 된다는 姿勢부터 根本的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이미 본 바 國語文字法에서 한글이 갖는 根本的인 缺陷은 漢字의 도우에 의해서만 克服될 可望이 있음에라. 이 問題의 本格的인 論議는 따로 展開하기로 하나 여기에서는 우선 國語漢字語를 한글로 적을 것이라는 主張, 이른바 한글專用論을 檢討하여 보기로 한다. 誤解를 막기 위해서 한 마디 해 둘 것은 한글專用表記나 國漢字混用表記나 的 判決이 그대로 國語文字法 構想의 結論으로 되는 것은 아닌란 것이다. 勿論, 이 問題는 우리의 論題와 깊이 關聯되지만 우리가 模索하고 있는 것은 이 問題를 包含한 綜合的인 國語文字法의 構想이기 때문이다.

漢字語는 漢字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單語라고 定義된다. 漢字語의 構成要素로서의 漢字는 特異한 文字로서 한 글자는 곧 한 單語乃至 形態素가 된다. 이를테면 學校, 學問, 學生, 獨學, 數學 등에 보는 ‘學’은 ‘배운다’는 意味를 가진 形態素이다. 그런데 여기서 形態素라 했지만 漢字語의 경우 그 表現形式-말하자면 「씨니피앙」-은 字形에 있지 字音에 있지 않다는 事實에 注意해야 한다. 위 「學」에 있어서 /학/이란 音形은 國語로서는 아무런 뜻도 없는 소리가 지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아」나 「버」나 「지」 따위가 아무런 뜻이 없는 소리임과 한 가지 理致다. 音形이 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만 이를테면 /천/은 ‘天, 千, 遷, 川, 喘, 穿’ 등 술한 말과 對應하기 때문에 결국 /천/은 그 어떤 것과도 對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를 漢字되게 하는 것은 漢字의 字形이므로 漢字는 漢字 모양으로 적지 않으면

안 된다. 이 論理를 延長한다면 漢字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漢字語를 한글로 音을 적는다는 것은 그것이 혹시 轉寫法(transcription)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國語文字法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國語語彙의 70%를 차지하는 漢字語는 勿論 國語이다).

轉寫法은 言語의 意味를 생각지 않고 그 音形을 적음을 目標로 하는 데 反해 文字法은 言語- 곧 言語의 有意味的 單位-를 적는 데에 뜻이 있는 것이다. 國語의 漢字語를 한글로 적자는 것은 意味는 저바리고 그 音形이나 적는다는 轉寫法일 뿐 國語文字法은 될 수 없다.

IV

本稿에서 우리는 ‘國語文字法の 構想’을 위한 基本的인 前提를 提示하였다.

“圖形的인 再現이 經驗을 約束에 따른 繼起的인 要素로 精細하게 分析하고 이것을 文字로 變形할 때 거기에 쓰이는 範疇型은 言語에 의해서 實現되어 있는 既存의 分析 그것이기 마련이다”²⁰⁾ 그리하여 文字는 “言語活動이 귀에 提供하는 것을 눈에 提示함으로써 言語活動을 二倍로 하는 것이다”²¹⁾ 한글은 國語의 音聲形式을 再現하는 데 있어 더 바랄 수 없이 適合하다. 國語의 有意味的 單位는 ‘音節’을 그 直接的인 構成要素로 하거니와, 여기에 必要되는 音節數가 二千餘에 이르기 때문에 音節文字를 採用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한글은 單音文字이면서 다시 서로 結合되어 音節을 이룬다는 二重的인 構造로 이 國語의 音聲의 特徵에 맞춘다. 文字法の 本來的인 機能은 그러나 言語의 音聲形式의 再現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機能은 言語記號의 表記-表語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文字는 단지 言語의 表現을 圖形的인 表現으로 옮겨 놓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는 偏見에 오래도록 사로잡혀 왔다. “文字의 構造는 言語의 記號와 한 가지로 씨니피앙의인 外形的인 表現과 意味內容과로 構成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言語의 活動과 文字라는 두 커뮤니케이션 體系는 同一의 意味內容, 곧 一般的인 人間經驗을 통해서 合致하는 것이다”²²⁾

國語文字法の 構想은 그리하여 國語構造의 有意味的 單位로의 分析作業으로부터 出發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作業을 한글과 한 가지 單音文字體系인 알파벳으로 表記되고 있는 西洋語의 構造分析 및 그 文字化의 原理와 對照하면서 進行하였다. 그 結果 西洋語에 있어서는 單語란 單位가 分明할 뿐 아니라 그것이 統辭的인 基本單位를 이루고 있어 이 單位들이 書記에서 空白에 의해서 區劃지어질 때(곧 單語마다 띄어 쓰기 될 때) 그 區劃單位가 文字言語에서의 認識單位와 合一되어 效率的인 言語的인 機能을 이루는 文字法으로 됨을 보았다.

國語에서의 有意味的 單位는 그러나 單語가 아닌 語彙素와 토이며, 따라서 書記에 있어서의

20) E. A. Llorach, 日譯本, 1972, p.263.

21) E. A. Llorach, 日譯本, 1972, p.262.

22) E. A. Llorach, 日譯本, 1972, p.262.

區劃單位는 이들 單位 自體가 아니라 이들이 結合된 syntagm이 된다. 그 結果 한글만으로 적힌 國語文字法의 경우, 그 讀書에서의 認識單位는 音節, 나아가서는 單音에까지 미치지 않을 수 없으며, 結局 機能面에서 棼 效率이 낮은 文字法으로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 悲觀的인 結果에 打開策을 열어 주는 可能性을 우리는 國語의 語彙構造에서 豫想하였다. 國語語彙構造의 두드러진 特徵으로서 全 語彙의 70%를 漢字語가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을 들 수 있거니와 이 漢字語를 漢字로 적음으로써 表音的인 表記에 그치는 한글만의 文字法에 表語性을 더하며, 나아가서 讀書效率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 테마의 論議와 論證은 따로 稿를 일으켜 다루기로 한다.